

김이강 서구청장, 민선 9기 구청장행정협의회장 선출

5개 구청장 통합특별시 출범 후 협의회 방안 논의 자치단체 간 특정 사무 협의·조정 초점 맞춰 운영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초대 광주특별시 구청장행정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민선 8기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 청장을 9기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에는 광주특별시 5개 구청장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의 협의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새로 출범한 '행정협의회'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가 공동 현안 협력과 정책 협의, 정부 공동 건의 등을 수행

하는 법정기구였다면, 새로운 행정협의회는 자치단체 간의 특정 사무를 직접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 22개 시·군과 함께하는 시군구협의회가 출범하더라도 광주 5개 자치구의 입장을 대변할 별도 협의회는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민선 8기 광주구청장협의회 회의는 총 46회 열렸고, 논의 안건은 144건에 달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민선 8기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을 9기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왼쪽부터 김병대 남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 문인민 서진제과-광주특별시 구청장행정협의회장, 신수정 민선 9기 북구청장, 임태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광주여대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경연대회' 석권

앵커사업단, 전국규모 대회 '대상·최우수상' 동시 수상 실무 중심 로컬브랜드 교육 성과 입증...창업 연계 주목

광주여자대학교 앵커사업단이 전국 규모 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실무형 교육의 성과를 입증했다.

광주여자대학교는 최근 무안 연꽃축제장에서 열린 '2026 제18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경연대회'에서 영양식품학과 학생들이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무안군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대표 메뉴를 발굴하고 음식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요리경연대회다.

광주여대는 RISE 사업 'G-웰니스 로컬 브랜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하나로 영양식품학과 창업동아리 2개 팀이 출전했다.

학생들은 무안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특화 메뉴를 직접 기획하고 시조작사부터 레시피 개발, 원가 산정, 브랜드 스토리 구

성, 조리과 플레이팅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실전형 메뉴 개발 역량을 쌓았다.

특히 개발한 메뉴는 지역성, 창의성, 상품성, 조리 완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60여개 참가팀과의 경쟁 끝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에 차지했다.

대학 측은 이번 성과가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 역량과 실무 중심 교육, 창업 연계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모전 출전을 목표로 메뉴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전문 멘토링, 현장 경연 준비까지 단계별 교육과 컨설팅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메뉴 개발 및 창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 식재료 기반 관광상품의 상품화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는 실무형 교육 모델을 구현했다.



광주여자대학교 앵커사업단이 최근 열린 '제18회 황토골 무안 전국요리경연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실무형 교육의 성과를 입증했다.

김지현 영양식품학과장은 "학생들이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창의적인 메뉴로 구현하기 위해 수개월간 노력한 결과가 전국 규모 대회에서 대상과 최우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

역사회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로컬브랜드와 창업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서영대, 'TOP 글로벌대학' 도약 선언

오늘 교내 운암관 서영홀서 창학 50년 비전 선포식

서영대학교(총장 김정수·사진)가 창학 50주년을 맞아 미래 100년 비전을 선포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대학으로의 도약을 선언한다.

서영대는 2일 오후 3시 운암관 5층 서영홀에서 '창학 50년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50년의 힘, 100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학의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발전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현악 4중주 식전공연에 이어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연혁보고, 창학 50주년 기념영상 상영, 설립자 AI 영상, 총장 기념사, 이사장 축사, 외빈 및 재학생 축하영상 순으로 진행된다. 또 장기근속자 근속패 수여식과 비전 선포식을 갖고, 캠퍼스 축하공연, 교가 제창, 폐회 선언, 기념촬영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영대는 이날 비전 선포를 통해 '사람



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TOP 글로벌대학'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는 AI·디지털·모빌리티·헬스케어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신지역 산업체·연구기관·지자체와의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정착 지원 △학생 맞춤형 학습지원과 평생직업교육 강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학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김정수 서영대 총장은 "창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교직원과 학생, 동문이 함께 비전을 실천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해 미래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통합특별시 초대 소방본부장에 이오숙 소방정감 여성 최초...전국 첫 통합 소방본부 지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소방본부 초대 본부장으로 이오숙 소방정감(사진)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오숙 신임 본부장은 여성 소방공무원 최초 소방정감에 승진해 대규모 통합 소방본부를 지휘하게 된 첫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총남 부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 1988년 소방사 공채로 대전소방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소방청 규공품질계장, 대구 북부소방서장, 소방청 코로나19 긴급대응과장, 강원도 소방학교장, 소방청 대변인을 거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현장과 행정 전반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지난 2002년 대전·충남 지역 최초 여성 119 안전센터장을 역임하고, 2018년 영남권 최초로 최연소 여성 소방사장에 임명되는 등 탁월한 현장 지휘 역량을 입증했다.

이 본부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의 초기 조직을 안정화하고, 지역 구분 없는 일원화된 광역 재난 대응 체계를 총괄 지휘하게 된다.

이오숙 본부장은 "그동안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총출하고 빈틈없는 통합 재난 대응을 구축하고, 세심하게 시민과 동료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119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광주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에 임창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광주특별시교육청)은 2일 초대 교육행정국장에 임창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사진)이 취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행정국장 인사는 광주특별시교육청 출범 이후 교육행정 조직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광주·전남 통합 교육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이뤄졌다.

임창호 국장은 인사, 예산 등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정책 추진 역량을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적 운



영과 소통 중심 행정을 이끌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임창호 국장은 취임에 앞서 "통합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정과 신뢰"라며 "광주와 전남의 강점을 조화롭게 융합해 하나의 교육행정 체계를 완성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주노동청·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예방 교육

건설·제조업 관계자 참석...안전관리 체계 강화 당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 대강당에서 지역 내 건설업 및 제조업 사업주, 현장소장 등 120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안전관리 강화 기조와 안전보건공단 비상경영체제 운영에 맞춰 업종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조업 관계자 700여명과 건설업 관계자 500여명 등 모두 1200여명이 참석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교육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오전에는 건설업, 오후에는 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나눠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청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수칙'과 '2026년 안전보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 안전보건공단 분야별 전문가들은 화재와 폭발, 붕괴·도괴 등 주요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자의 주요 안전관리 책무와 여름철 폭염에 따른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 계절별 안전관리 방안도 함께 교육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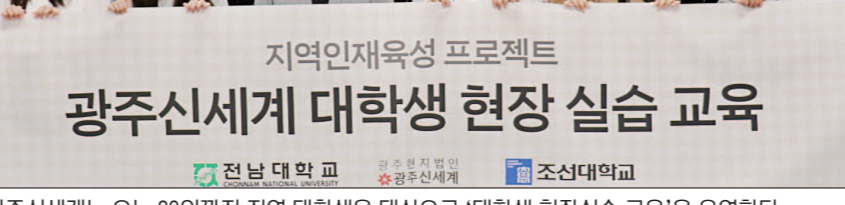
송태영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은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광주과학기술원 오희관 대강당에서 지역 내 건설업 및 제조업 사업주,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특별교육'을 개최했다.

광주신세계, 지역 대학생 대상 현장실습 운영

지역인재육성 프로젝트 광주신세계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



광주신세계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을 운영한다.

광주신세계, 지역 대학생 대상 현장실습 운영

(주)광주신세계가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력을 통해 유동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8일까지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현장실습 교육'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대학과 지역 기업이 함께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유동 현장에서 적용하며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2개 대학에서 선발된 11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교육은 직무 탐색부터 고객 서비스, 마케팅 실무, 사회공헌 활동까지 유동업 전반을 경험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유동업체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현장 업무를 직접 체험하며 직무 이해도

를 높일 수 있어 해마다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가 학생들은 4주 동안 영업부서 직무 체험을 비롯해 고객상담실과 라운지 등 고객 접점 부서에서 근무하며 백화점 운영 전반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마케팅 콘텐츠 제작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우고, '그린마켓' 등 광주신세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ESG 경영 활동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은 지역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유동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며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우고 유동업체를 이끌어갈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j1404@gwangnam.co.kr